

‘무득점 김낙현’ 여전히 믿는 유도훈 본심은?

〈6강 PO 1차전 15분52초 출전〉

〈전자랜드 감독〉



유도훈 감독



인천 전자랜드(정규리그 6위) 유도훈 감독은 18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주 KCC(3위)와의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PO·5전 3승제) 1차전을 마친 뒤 이례적으로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한 신인 가드 김낙현(24·183.7cm)의 이름을 언급했다. 김낙현은 이 경기에서 15분52초간 출전했지만 무득점에 그쳤다. 필드골 10개를 시도해 하나도 적중시키지 못했다. 리바운드와 어시스트도 없었고, 블로킹만 1개를 기록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유 감독은 "김낙현을 계속 출전시킬 계획이다. 1차전에서는 썩 좋지 않았지만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기량을 갖췄다.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

유 감독이 공개적으로 김낙현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가 있다. 그의 활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자랜드를 상대하는 팀들은 대부분 가드 수비 비중을 줄이며 다른 쪽 수비에 더 심혈을 기울인다. 전자랜드 포인트 가드 박찬희(31)가 외곽슛이 약하다는 약점을 파고드는 전략이다.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박찬희 대신 출전하는 김낙현이 외곽에서 어느 정도 득점을 해줘야만 상대의 극단적인 수비를 깨뜨릴 수 있다. 출발은 썩 좋지 않았다. 김낙현은 6강 PO 1차전에서는 3점슛 5개를 던져 모두 실패했다.

전자랜드는 지난 시즌 PO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서울 삼성은 전자랜드를 상대로 박찬희에게 슛을 '허용하는' 수비를 펼쳤다. 그런데 이를 파괴한 주인공이 있었다. 현재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김지완(28)이다. 그는 지난해 삼성과의 6강 PO 5경기에 모두 출전해 평균 12.0 점·6.2 어시스트로 깜짝 활약을 펼쳤다. 정규리그에서 평균 5.56점·3.1어시스트를 올리는데 그쳤지만 PO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6강 PO에서 전자랜드가 2승3패로 삼성에게 밀려 4강 PO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전자랜드는 김지완이라는 새로운 선수의 가치를 확인했다.

유 감독은 내심 김낙현이 지난해 김지완과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김낙현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27경기에 출전해 평균 5.0득점·1.1어시스트·0.9리바운드를 기록했다. 지난달 9일 창원 LG와의 정규리그 경기에서는 5개의 3점슛을 성공시킨 바 있고, 이달 2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20점으로 프로 데뷔 이후 개인 한 경기 최다득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경기 운영은 박찬희에 비해 부족하지만 외곽슛 등 득점력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 6강 PO 1차전에서는 긴장했는지 평소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김낙현이 유 감독의 바람대로 '제2의 김지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전자랜드는 김낙현의 깜짝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그의 외곽 슛으로 상대 수비의 허를 찌르는 전략이다. 스포츠동아DB



김정은

강아정

무관 김정은 vs 강아정 첫 우승 주인공 나야 나



프로스포츠 선수들에게 '우승'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아니다. 우승 경험은 커리어의 격을 높여주는 요소다. 아무리 리그 정상급의 기량을 가진 선수라 할지라도 우승 경험이 없다면 '무관의 제왕'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여자프로농구 아산 우리은행의 김정은(31)과 청주 KB스타즈의 강아정(29)은 기량 면에서는 이미 리그 최고 반열에 올라 있는 선수들이지만 아직 우승 경험이 없다.

둘은 데뷔 이전 '초고교급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정은은 2006년 드래프트 1순위로 부천 KEB하나은행의 전신인 신세계에 입단했고, 강아정은 2008년 드래프트 1순위로 KB스타즈 유니폼을 입었다. 신인시절부터 팀의 주축선수로 활약하면서 나란히 국가대표에도 선발되는 등 프로선수로서 성공가도를 달려왔다.

그러나 우승과는 인연이 없었다. 어느덧 김정은은 프로 12년차, 강아정은 10년차의 베테랑이 됐다. 오랫동안 우승을 기다렸던 이들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다.

김정은이 속한 우리은행과 강아정이 주축인 KB스타즈는 '신한은행 2017~2018 여자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5전3승제)에서 우승을 놓고 한 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었던 김정은은 우리은행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승'이었다. 일단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첫 번째 목표는 달성했다. 김정은은 현재 무릎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생애 첫 통합우승을 위해 이 악물고 버티는 중이다. 김정은은 지난 17일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린 챔피언결정전 1차전에서 14점을 올리며 팀 승리(63-57)에 기여했다. 통합우승까지는 2승만이 남았다.

KB스타즈는 비록 1차전을 내줬지만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KB스타즈는 강아정 뿐 아니라 구단 역사상 첫 챔피언결정전 우승에 도전하고 있다. 신한은행과의 6강 플레이오프에서 접전을 펼쳐 체력이 고갈된 상태지만, 첫 우승을 향한 정신력으로 버티는 중이다. 지금 이들에게 첫 우승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관의 베테랑' 김정은과 강아정. 과연 첫 우승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애석하게도 둘 중 한 명 뿐이다. 한 명은 또다시 눈물을 흘려야만 한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女배구 셀러리캡은 남녀차별 아닌 자본 규모의 문제



취재파일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흥행구단 한시준 수입 1억5000만원 불과 셀러리캡 안 올리는게 아닌 못 올리는 것

‘프레임(frame)’.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틀을 일컫는다. 프레임은 원래 정지 용어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보고 싶은 현실’을 유권자가 사실임을 믿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여자배구 셀러리캡’은 14억원이고 향후 2년간 동결이다. 반면 남자배구는 25억원이고, 1년에 1억씩 올린다. 게다가 여자배구는 선수 한 명이 총 연봉의 25% 이상을 받지 못하는 단서조항까지 있다. ‘한국프로배구에 ‘남녀 차별리그’ 프레임 씌우기 딱 좋은 구도다. 여성가족부나 어떤 국회의원들은 이런 선동에 편승해 ‘순가락’을 얻고 있다.

비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비판은 공정한 사실에 발을 디디는 지점에서부터 시작된다. 여자배구가 셀러리캡을 안 올리는지, 못 올리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순서다.

여자프로배구에서 가장 흥행이 잘 되는 팀도 경기당 입장수입이 1000만원 안팎이다. 15경기를 하니 한 시즌 1억5000만원을 버는 셈이다. 웬만한 주전선수 한 명 몸값에도 못 미친다. A구단 마케팅 관계자는 “여자배구팀은 수입은 없고



여자배구 셀러리캡 규정을 두고 '남녀 차별리그'라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여자배구는 자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빅리그가 아니다. 스포츠동아DB

비용만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파도, 외면하고 싶어도, 이것이 현실이다.

이런 리그에서 여자배구 셀러리캡 동결은 남녀의 차별이 아니라 자본이 규정짓는 영역이다. 여자배구에 비해 남자배구의 시장이 작는데, ‘왜 똑같이 안 주느냐’고 공격한다면 비교의 폭력이다. KOVO(한국배구연맹)가 여자팀들의 살림살이에 간섭할 만큼 전지전능한 조직이라고 믿는다면 기만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여자배구는 빅리그가 아니다. 스몰마켓이니가 제한된 자본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냉정히 말해서 김연경을 품을 사이즈가 못되는 리그인 것이다.

논란의 '25%룰'에 관해서도 현직 여자팀 감독 B는 말한다. “지금 여자프로배구에 3억5000만원 이상 받을 선수가 있을까. 만약 있다면 이는 실력 덕분이 아니라 선수 수준의 결함 탓”이라고 지적한다. 게다가 이미 S급 여자선수는 공식 발표만 안할 뿐, 이미 옵션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여자 셀러리캡 규정의 시효는 2년이다. KOVO 이사회에서도 ‘과도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 2년 사이, 여자프로배구의 마케팅 자력, 국제경쟁력, 저변을 어떻게 높일지를 고민하는 것이 발전적 접근법일 터다. ‘남녀 차별 프레임’은 자극적일뿐, 한국배구에 해롭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캐나다서도 “영미!” 여자컬링 3연승 합성

세계선수권 예선 덴마크에 7-5 역전승 4차전 스웨덴과 재대결...설욕전 각오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국민들에게 은메달의 영광을 선사한 컬링여자대표팀이 연일 낭보를 전해오고 있다.

김은정(28·스킵)-김경애(24·서드)-김선영(25·세컨드)-김영미(27·리드)-김초희(22·후보·이상 경북체육회)로 구성된 ‘팀 김’은 19일(한국 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노스베이에서 열린 2018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예선 3차전에서 덴마크를 7-5로 꺾고 쾌조의 3연승을 달렸다. 순위 표에서도 캐나다, 러시아, 스웨덴과 나란히 공동 1위에 오르며 13개국 가운데 당당히 선두권을 형성했다. 평창에서의 기세는 여전하다.

경기 중후반 강한 집중력에 기반한 화끈한 ‘뽕심’이 팀 김의 매력이다. 독일과의 1차전에서 5~

6엔드에 6점을 몰아치며 상대의 추격의지를 꺾었고, 체코와의 2차전에선 5-4로 뒤진 채 맞이한 9엔드서 4점을 때내며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덴마크전 역시 마찬가지였다. 6엔드까지는 2-4로 다소 밀렸으나, 이어 7~8엔드에만 5점을 쓸어 담아 승기를 잡았다.

주장 김은정의 활약도 눈부셨다. 덴마크전에서 3점 성공률 96%를 기록하며 양 팀을 통틀어 최상의 컨디션을 자랑했다. 10엔드에서도 테이크아웃 샷을 성공시켜 덴마크로부터 기권을 받아냈다. 김선영(93%)과 김경애(90%), 김영미(86%)도 선전했다. 덴마크 선수 중 최고 성공률을 기록한 리나 쿠누드센(85%)과는 크게 비교됐다.

대표팀은 설욕의 기회 또한 앞두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가로챈 스웨덴과 20일 예선 4차전으로 재회한다. 세계가 인정하는 강팀으로 거듭난 ‘팀 김’에겐 오직 승리뿐이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프로스포츠협회 신임 사무총장에 오자왕 박사 선출



오자왕 사무총장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19일, “지난 16일 서면결의로 정운찬 회장이 제청한 서강대학교 겸임 교수 오자왕(47) 박사를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오자왕 사무총장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체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서울대 스포츠산업연구센터의 책

임연구원과 스포츠경영컨설팅 기업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KBO, 한국프로축구연맹, KBL, WKBL, KOVO, KPGA, KLPGA 등 프로스포츠 7개 단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지난 1월 정운찬 KBO 총재가 2대 회장으로 선출돼 신임 사무총장을 외부에서 영입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